

일본 관서 시노노메교회 고우(34,가정국) 계시
받은날 : 2010.12.12

<경위>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절실하고 몹시 다급하신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제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도 등을 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답답해하시면서 제가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간신히 예수님과 통하게 되어 예수님께 영문을 여쭙니 「오늘 너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니 「제3섭리다」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3섭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제> 제3섭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일본 사람에게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 선생님의 가치성

2010.12.12. am 05 : 47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옥의 바닥의 바닥,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장소를 지나 계속 내려가셨습니다. 갈수록 습기가 높아지고, 공기가 눅눅하고 무거워졌으며, 지독한 냄새도 풍겨 공기 자체가 오물처럼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지옥같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괴롭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 예수님께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왜 이런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여쭙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고, 제가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하시고는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한 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록하여라, 너는 볼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보고 듣고 써서 보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동안, 사탄인 것 같은 요상한 동물 같은 자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너무 이상한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변, 토사물, 진흙과 같은 어둡고 더러운 색깔로 그 피부는 터지고 온 몸은 상처투성인데다, 고름이 흐르고, 몸은 뻘뻘 말랐고, 다리는 이상한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서, 다리를 절면서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발의 손톱, 발톱은 이상할 정도로 길어서, 몸의 균형이 매우 나쁜 장애인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저들은 뭐예요?」 라고 여쭙니 「저것이 인사탄들의 영혼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저런 모습이라니... 저들의 육신은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쭙니 「살아 있다.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이 저런 상태로 육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저건 아무리 봐도 시체예요, 시체인데도 살아 있는 거예요?」 라고 여쭙니

「그렇다, 그 육신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 영혼은 죽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들 중에 유달리 심하게 괴로워하며 뒹굴고 있는 인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극심했으며 저는 저렇게 괴로워하며 뒹굴다가는 팔다리가 떨어져나갈 것 같아, 쳐다보고 있으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덩치가 큰 사탄이 와서 그 인사탄을 찼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탄의 내장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저는 무서워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으나 영계와 육계는 사정이 다른지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인사탄들도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여쭙었더니 「제3섭리다」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의 영계·육계를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유달리 괴로워하고 있는 자는 제3섭리의 지도자였고 주변에서 떨고 있는 인사탄들은 제3섭리에서 활동하며 뛰어다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영혼이 이미 죽어 지옥 바닥의 바닥의 바닥, 그보다 더 깊고 깊은 곳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3섭리(제2가라지)가 뭔지도 모르는 일본 섭리 사람이에요. 이것을 봐도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한국의 더 우수한 계시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계시자들에게도 이미 역사하고 있다. 어떤 자는 깨어 있고, 어떤 자는 잠자고 있다." 예수님의 눈을 보니, 깊은 사정과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인 내가 말함으로 구원을 받을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서는 밖에서 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탄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저는 예수님 품에 있었지만 그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숙여 안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수님의 발도 보이는데 왜 사탄들이 보이는지 신기하다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지옥은 본인이 싫어하는 그 어떤 작은 것으로부터도 도망갈 수가 없다. 어떤 작은 구원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내가 그 눈을 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이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 싫은 것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 눈을 가려 최대한 필요한 것 외에는 보지 않게 해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안쪽에서는 루시퍼가 환희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추잡한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한 말, 잔혹한 말, 추잡한 말을 하고, 저의 뇌는 완전히 멈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감싸주시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까 본 인사탄이 끌려와서 호되게 혼내고 있었습니다. 호되게 혼난 데다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갇은 욕을 먹고, 더러운 말로, 무서운 말로, 신부들을 더 데려오라고 협박을 당하며,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는 상태였습니다. 즉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서, 더욱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행위를 하여,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죽음의 수레바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지옥 엘리베이터」 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속도가 몹시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불교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속도로 보다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져,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꿰뚫어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져도, 한층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 고통에 바닥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저는 그 영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미래는 없습니다만), 그 고통과 울부짖음과 공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처참함을 생각만 해도 제 뇌와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머지 않음을 알고 저는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저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밤과 같은 포근함, 그러나 육계의 밤과는 달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빛나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옥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봤니? 잘 참았구나. 오늘은 지옥의 아주 일부분,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지옥의 일부분을 본 것이다. 괜찮았니?」 예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분명, 제 신경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품 안에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순수하고 청결하신 예수님과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지를 생각하니, 저도 힘을 내야 될 것 같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제3섭리의 현황이다. 오늘은 정말로 깊은 곳까지 가서 그들의 모습의 일부분만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어서 너에게 이를 보

였다. 영계, 혼계, 정신계, 육계를 꿰뚫어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지 못하여 속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슬픈듯이, 괴로운듯이 「저렇게 나의 사랑들이 죽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려도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너에게 하늘의 논리를 말해 주었고(※2010년 12월 11일에 주신 계시), 이렇게 계시자들을 통해 영적 실상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가르쳤으니 속지 말아라. 힘차게 “아멘!” 해 주기를 바란다. 나를 안심시키고 웃을 수 있게 해다오. 나의 사랑들에게 전하여 힘차게 “아멘!” 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작은 계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극심하고 가혹한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는 나의 최고의 사랑 선생, 너희들이 사랑하는 선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내 사랑들에게 여기 있는 작지만 충성의 사랑을 가진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를 통하여 나 예수가 한 말이다.」

그리고 지친 저를 위로하시려는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1: 예수님, 영계의 실상을 봤을 때, 사탄과 루시퍼의 더러운 말을 듣고 뇌가 마비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악인은 자기가 악하니 선인을 악인이라고 하며 죄의 누명을 씌운다. 선인은 자기가 선하므로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악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선에 관한 것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악은 악을 알지만 선은 선만을 안다.

내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는 내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너의 뇌가 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선생을 통하여 주어진 하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로 머리를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며, 마음이 선하므로 그들의 악의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나의 사랑을 사전에 부여하여 너의 뇌를 지켰기 때문이다. 또한 너는 그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질문2: 「영계에서 말을 들으면 한 마디가 대량의 정보와

뜻의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런가요? 또한 전에 영계를 봤을 때, 아름답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입에서 빛 구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웃으셨습니다.)

영계의 언어는 육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르다. 영계에서의 한 마디를 육계의 말로 풀면 평생 걸려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하물며 영계의 말 중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말은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겠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한 마디겠느냐. 또한 그 한 마디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너희들의 선생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나의 말을 그보다 더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존재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 전 인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다. 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다.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운명을 좌우한다고 한 의미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끔 그렇게 들린다(덩어리처럼 들린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내가 도와주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보고 놀란 것, 즉 아름답고 키 큰 사람은 천사들로 빛의 구슬은 영계의 한마디를 본 것이다. 그들은 그냥 (사랑의)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랬구나!”하며 놀랐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둘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 제 기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